

통신

고지전은 재개되었다

2014. 5. 29

통신/지주회사
Analyst 김준섭
02-3779-8919
jskim@etrade.co.kr

'G3' 출시하자마자 공짜폰?

LG전자의 새 전략 스마트폰인 'G3'가 출시되자마자 '공짜폰'이 됐다. 이동통신 3사의 '불법 보조금' 경쟁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28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G3'는 출시를 하루 앞둔 전날부터 온·오프라인 휴대폰 판매점에서 공짜로 살 수 있다는 예약판매 조건이 등장했다. 'G3'의 출고가 당초 예상한 90만 원 대보다 낮은 89만9800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한 이통사는 전날 저녁 보조금을 90만 원 투입했다. 이날 오전 또 다른 통신사가 보조금을 100만 원 대로 지급하였다.

단말기 유통구조개선훁이 발효될 10월까지의 고지전의 양상 지속 전망

게다가, 통신 3사가 모두 영업재개 한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5.23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휴대폰 일부 기종에 최대 100만원 가량의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즉, 출고가 106.7만원인 갤럭시 노트 3가 10만원 선에서 판매되었고, G프로2, 베가시크릿업 등은 공짜로 공급되었다고 한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훁이 발효되면 이통사들의 보조금과 제조사의 장려금 지급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즉, 보조금과 장려금 지급규모가 투명화되면 통신사 및 제조사는 보조금(및 장려금)을 지급할 유인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번호이동은 어렵게 될 것이며, 시장점유율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그 전에는 어떻게든 시장점유율을 높여놓아야 한다. 즉, 단말기유훁이 본격 발효되기 전인 10월까지의 불법보조금이 과열화되는 국면에 있을 것으로, 상반기 마케팅 비용은 높은 수준으로 집행될 것이 전망이다. 우리는 방통위의 강력한 불법보조금 규제 및 단속에도 판매점과 대리점 등이 매번 방법을 바꿔가며 지원되는 것을 본적이 있다. 작년 불법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나온 직후에도 유통 채널은 관계당국의 단속강화에도 단속과 신고를 피하는 방식으로 진화하여 왔다.

이제는 단말기 유통구조개선훁이 발효되는 10월 이후의 게임전개에 주목할 때

하지만, 지난 16일자 리포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단말기 유통구조개선훁이 발효되는 10월 이후의 게임전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0월 이후에는 보조금 중심의 마케팅 비용을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통신사들은 부가서비스 개선 및 추가를 위한 Capex 투자 위주, 요금제 위주의 게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요금제 위주의 게임은 요금인가제 하에서 어려운 면이 있지만, 확연한 것은 보조금 위주의 일대일 영업보다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역량이 부각되는 시점이다.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김준섭)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종목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단계 (Strong Buy/ Buy/ Marketperform/ Sell)
업종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 (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
2012년 5월 14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3단계 (Buy/ Hold/ Sell)에서 4단계 (Strong Buy/ Buy/ Marketperform/ Sell)로 변경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적용기준(향후12개월)
Sector(업종)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Report(기업)	Strong Buy (강력매수)	절대수익률 기준 50% 이상 기대
	Buy (매수)	절대수익률 기준 15%~50% 기대
	Marketperform(시장수익률)	절대수익률 기준 -15%~15% 기대
	Sell(매도)	절대수익률 기준 -15% 이하 기대
	N.R.(Not Rated)	등급보류